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황대일 / **주간** 고성진 / **부주간** 최재호 /
논설위원 최재호 / **편집담당** 배상범 / **편집국장생도** 김찬영 /
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충성대신문

제175호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54기 사관생도들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학교 연병장에서 졸업 및 임관식을 갖고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정예장교로 거듭났다.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 가능한 최정예장교 탄생

3사 54기 489명(여군 18명) 임관, 방민석 소위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
독립운동가 손자 변종운 소위, 100주년 맞는 3·1절 앞두고 뜻깊은 임관
부모님과 2남 2녀, 모든가족이 장교의 길 걷게 된 홍석규 소위

본교는 28일 오후, 학교 연병장에서 54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갖고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최정예장교 489명(여군 18명)을 배출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학부모, 가족, 친지, 내외귀빈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졸업 및 임관하는 3사 54기 사관생도 489명은 지난 2017년에 입교하여 2년간에 걸쳐 일반전공 및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전공별로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민석(만 25세)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방 소위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전차대대에서 병·부사관 생활을 거쳤다. 이번에 장교로 임관하게 되어 군번을 3개나 보유한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되었다. 임관자 중 군번이 3개인 생도는 방민석 생도를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들은 남다른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장교의 길에 도전해 왔으며, 향후 병사와 부사관을 아우르는 통섭형 리더로서 그 활약이 기대된다. 방 소위는 "병, 부사관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부하들의 말에 항상 경청하고, 솔선수범하는 행동리더십을 실천하여 강한육군, 자랑스러운 육군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변종운(22세) 소위는 독립운동가였던 증조부 변동식 선생과 6·25전쟁에 참전했던 조부 변택희 선생의 뒤를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변 소위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대의 뜻을 이어가게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책임감 있는 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4명의 온 가족이 장교로 임관한 장교 가족도 탄생했다. 홍석규(24세) 소위는 아버지가 3사 24기로 임관한 홍성휘 예비역 대령, 어머니가 국군간호사관학교 28기로 임관한 정의숙 대령, 여동생은 국군간호사관학교 58기로 임관한 홍현지 중위(진)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3사, 어머니와 딸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선·후배의 길을 걷게 되었다. 홍 소위는 "부모님, 여동생과 함께 장교의 길을 가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가족들처럼 국가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사 출신 여군장교 중 최초로 기갑병과로 임관하게 된 강유정(24세) 소위는 지난 2017년 두 번의 도전 끝에 3사에 입교했다. 강 소위는 임관장교 대표로 소감문을 낭독하며 "3사 출신 장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국가방위의 초석으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 생도생활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통해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력을 드러낸 이들도 많다. 정동현(23세) 소위는 생도기간 중 ITQ 1), MOS2)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과 서평지도사 등 21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태권도 4단 이상의 무도 고단자들도 24명이나 된다. 이번에 임관하는 신임 소위들은 전원 체력검정과 사격에서 특급을 달성했고 전산분야와 무도에서 초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다. 육군에서 통제하는 임관종합평가 6개 전 과목을 우수하게 통과하는 등 정예 장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갖췄다.

1968년 국내외 안보상황이 위태롭던 시기에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본교는 지금까지 약 15만 명의 정예장교를 배출한 호국간성의 요람으로 국가적 위기 때마다 극복에 앞장서며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해 왔다.

본교는 대학 3·4학년 과정에 편입하여 정예장교로 임관하는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이자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예장교', '야전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정예장교 육성'을 목표로 미래 육군의 주역을 양성하고 있다.

정훈공보실장 중령 고 성 진

지면 안내
02 **학교소식** | 사관생도 56기 529명 입학식
05 **명사칼럼** |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06 **기획취재** | 조은시스템 김승남 회장

07 **생도광장** | 우리들의 이야기 포토스케치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56기 입학식

56기 529명, 충성 기초훈련 마치고 2년간 정예장교를 향한 담금질 시작

본교 56기 생도 529명(여생도 54명 포함)은 전사기질을 함양하는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끝내고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충성기초훈련은 사관생도에게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기본자세와 내적가치를 확립하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제식, 사격, 행군 등 기초전투기술을 연마하여 사관생도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훈련이다.

한낮에도 영하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던 지난 1월에 입교한 56기 사관생도들은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육체적 ·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식 사관생도로서 부모님과 친지들 앞에 당당히 섰다. 군인정신과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충성기초훈련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그 어떤 과정의 훈련보다 힘들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학부모와 가족 등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열이 시작되자 입교 전의 모습과 달리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과 함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갈채를 보냈고, 일부 부모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학교장 황대일 소장은 축사를 통해 "혹한의 추위와 난관들을 이겨내고 오늘이 자리에 당당히 사관생도로 선 여러분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국가와 군이 요구하는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예장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교는 2월 22일, 학교 충성연병장에서 학부모, 가족, 친지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6기 사관생도 529명의 입학식을 가졌다.

행사는 학교 장병과 학부모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국민의례에 이어 입학신고, 선서, 학년장 수여, 학교장 축사, 입교생도 및 부모님의 소감문 낭독, 분열 순으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사관생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공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군사학과 일반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사관생도로서 패기, 그리고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정예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대위 손아리

충성 동계군사훈련간 전투사례 교육

지난 1월 25일 54기 사관생도 488명과 55기 사관생도 259명을 대상으로 미 해병캠프 작전담당 중사 Hoyt Cole 등 4명을 부대로 초청, '전장에서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54기, 55기 충성 동계군사훈련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미해병캠프 무적부대 소개를 시작으로 개인 군장 결속 방법, 실제 전투경험담 및 실전 노하우 전수, 기타 전장상황 조치 등을 교육함으로써 사관생도들이 전장에서의 올바른 리더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정영찬 생도(54기)는 "이론으로만 접했던 전투에 대한 실전 경험담과 전장상황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 야전에서 임무 수행해야할 초임장교로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주무관 배상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지난 1월 2일,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는 '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학교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충혼탑 및 충혼비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립영천 호국원을 찾아 추념식을 가진 후 교내에 위치해 있는 충혼비로 이동하여 전 간부와 함께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치신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는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배요식 대령은 "선배님들의 목숨 바치신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55기 기자생도 고명환

충성대 만평

학교발전, 혁신적 마인드 갖추고 실천해야

학교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 진행

본교는 지난 22일 학교 회의실에서 미래 전장환경을 주도하고 야전을 선도할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학교장(소장 황대일)을 비롯하여 교수부장, 생도대장, 행정부장 등 학교의 주요직위자와 교수, 교관, 훈육관, 행정 및 지원부서 요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학교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의하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계급 높은 주무부서의 사회자에 의한 의견조율과 결론유도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특정한 사회자 없이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어떤 의견이라도 비판과 반론 없이 자유롭게 발표하고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제반 문제점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강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는 등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다는 후문이다.

이날 주제는 ▶미래 국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체계 개선 ▶생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휘훈육 개선 ▶학교 브랜드 가치 향상 방안 ▶생도 중심의 지원체계 개선 등 4개이며, 참석자들은 각각의 주제에 대해 그간 노정된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고민하였으며, 제시된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변화를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학교장은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혁신적 마인드를 갖추고 이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매월 정례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대위 손아리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예 사관생도 육성

5주간의 '충성 기초훈련'으로 정예사관생도 양성

지난 1월 10일부터 56기 임시입학생도 550여 명(여생도 55명)을 대상으로 5주간의 '충성 기초훈련'을 시행했다. 학교는 이번 훈련을 위해 '기초훈련교육대'를 편성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교관연구강의, 훈련장 및 교보재 정비, 병영시설보강 등을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평가회의를 통해 완벽한 훈련준비에 매진해 왔다.

온몸을 파고드는 칼바람 속에서 시작된 '충성 기초훈련'은 사관생도에게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기본자세와 내적가치를 확립하고, 개인화기, 화생방, 각개전투 등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 전투기술을 연마함은 물론, 규칙적인 병영생활을 통해 사관생도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본교의 정식 사관생도로 입학할 수 있고, 2년 동안의 대학 3·4학년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한편, 올해부터 여생도 입학정원이 전체 10%로 증가하여 총 정원 550명의 10%인 55명의 여생도가 입교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력 확대 정책에 따른 결과로써 기존에 비해 여생도 비율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 임시입학 생도들의 자원분석 결과, 군을 사랑해 장교로 임관하고자 하는 현역 및 예비역 출신이 82명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하였으며, 외국대학과 수도권 주요대학출신이 30%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TOEIC 등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이 85%나 되는 등 육군3사관학교 입교 생도들의 자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간부로 근무하다 입교한 박병휘 임시입학 생도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부사관(하사)으로 복무 중, 사관생도들의 생활이 멋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 반해 지원하게 되었다"며, "멋진 장교가 되어 저를 응원해주신 주위 분들께 꼭 보답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55기 기자생도 김유란

"충성대신문은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충성대신문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바라는 점이나 제한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대상** : 구독자 및 전장병, 군무원 등 충성대신문에 관심있으신 분
- **내용** : 충성대신문 개선방향 - 추가 및 삭제 코너, 발전방향, 바라는 점, 제한사항 등
- **제출방법**
  - 메일 : (인터넷) 3academy3600@army.mil.kr
    (군인트라넷) cptksj@army.mil, son1312@army.mil
  - 우편 :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호 정훈공보실(우 : 38900)
- **문의처** : 일반전화) 054-330-3600~5 / 군전화) 952-3600~5

드론봇 전투체계 임무수행 준비 완료

사관생도 5명, 드론 자격증 취득

본교는 지난 1월 23일과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사관생도 5명이 합격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법규상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중·대형 드론을 사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드론'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만 한다. 이 규정은 군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 육군의 드론봇 전투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드론 조종자들은 반드시 기본자격증으로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이 만만치 않아 도전자는 많지만 좀처럼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2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여 분에 걸친 엄격한 비행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이번에 합격한 사관생도는 임관을 앞둔 4학년 김석민, 김지환 생도와 3학년 고성원, 정남규, 유경운 생도이다. 이들은 빠듯한 생도생활 중에도 틈틈이 이론을 학습하고, 스마트드론부 분화체육활동(동아리 활동)과 주말 등 개인시간을 활용하여 드론 비행훈련을 숙달함으로써, 응시자격 요건인 비행경력 20시간을 충족하게 되었고, 이번에 실시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이번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4학년 김석민, 김지환 생도는 육군 소위로 임관을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 등 드론과 관련된 부대와 직책에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김석민(좌), 김지환(우) 사관생도

주무관 이경희

사 설

3·1절 100주년 즈음에 '임관'의 무게를 생각하다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날을 길이 빛내자"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필자가 재학시절만 해도 국경일 특히, 3·1절과 광복절 노래는 많이 부른 것 같다. 그만큼 3·1절은 우리에게 각별한 날이 아닐까?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국권이 상실된 이래,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독립운동을 시도했지만 국제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자체적인 역량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시기 닐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과 일본 동경에서 2·8독립선언을 한 청년학생들의 영향을 받은 민족지도자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에서 무려 200여만 명의 동포들이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 3·1운동이다.

당시 청년학생과 지식인은 물론, 양반과 일반 백성들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저항운동 형태로 전개된 3·1운동은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폭압적인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을 낳고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3·1운동은 전 세계 독립을 꿈꾸는 모든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비폭력 저항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에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독립군 간부양성 교육기관들이 속속 설립되어 홍범도, 김좌진과 같은 걸출한 독립군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고 승전보를 올렸으며, 이들의 항일무장투쟁 정신은 후일 광복군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국군에게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3·1운동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적 후계임을 자청하는 우리 국군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하며,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정신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만일 구한말 대한제국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켜나갈 힘이 있었다면, 백성들의 민의가 살아 있고, 군인들이 올바른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안중근 장군처럼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외치며 조국의 재단에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있었다면 과연 대한제국이 일제의 속국이 되었을까 라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구한말 조선의 군대, 아니 대한제국의 군대는 무기력하였다. 그들에게서 올바른 군인정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은 구식군대와 신식군대로 나뉘었고, 차별을 느낀 구식군대는 임오군란이라는 군사정변으로 청일전쟁을 야기하였으며, 일본군 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신식군대는 국모를 시해하는 일인들을 도와 왕궁을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군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비록 1907년 군대 해산 명령을 받은 박승환 참령이 자결하면서 해산된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지만, 그 이전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의 군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무기력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얼마전 54기 사관생도들이 육군소위의 계급장을 달고 장교단의 일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어려움과 극한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가장 영예스러운 임관식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와 국민은 청년장교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내에 위협과 평화가 공존하고,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마찰이 증가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임장교들이 짊어져야 할 책무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3·1절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임관한 신임장교들은 그 어느 해보다 임관의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 구한말 대한제국의 군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군인답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안위를 모두 버리고 희생한 독립군, 광복군의 후예답게 말이다.

3사 54기 신임장교들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교관은 사관생도의 거울이다!

충성대 칼럼

소령 나 창 근(생도대 군사훈련처 정신전력교육교관)

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호국간성의 요람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임무수행한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오늘도 군사훈련처 교관들은 야전에서 즉각 임무수행 가능한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에 사관생도들과 함께 하며 창끝 전투력 발휘를 위한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충성 동계군사훈련간 이제 곧 임관을 앞둔 4학년 사관생도가 나에게 "2년 동안 교관으로서 항상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솔선수범해 주셔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교관님과 같은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사관생도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과연 사관생도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었다. 그리고, 이제 막 교관 임무를 시작하는 동료 교관들에게 사관생도들의 거울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실천방법을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사관생도들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 교관은 솔선수범, 동기부여, 의사소통,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첫째, 솔선수범이다. 교관은 앞장서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사관생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솔선수범은 리더십 발휘의 핵심요소로 교관이 먼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섬으로써 사관생도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교관은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에서도 언급된 퍼스트 펭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펭귄 무리는 먹이를 구할 때 바다 속 천적 때문에 선뜻 뛰어들지 못한다. 이때 용기 있는 한 마리가 바다 속으로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뛰어들어 먹이를 사냥한다. 또한, 교관은 평소에 단정한 두발과 복장, 군번줄 착용 등 먼저 외적으로 모범을 보여 사관생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동기부여이다. 교관은 훈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관생도들의 의욕과 열정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특히, 훈련간 「WHY? 캠페인」 방법을 적용하여 사관생도 스스로 생각하고, 설명하고, 묻고 답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교관은 사관생도들에게 인정과 칭찬,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의사소통이다. 소통 능력이 뛰어난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처럼 교관은 훈련기간 뿐만 아니라 일반학기 기간에도 전화, 메일, SNS 등을 통해 사관생도들과 소통하며 친밀도와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특히, 훈련간에는 사관생도들과 미소로 눈을 맞추고, 공감적 경청과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소에 자신의 말을 녹음하여 들어보고, 불필요한 언어습관을 줄이고 부정확한 발음과 내용은 반복 연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존중과 배려이다. 교관은 사관생도들에게 언행에 신중해야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과 배려해야 한다. 교관의 사소한 잘못이나 경솔한 언행은 사관생도의 품성과 인성함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관의 존재 이유는 사관생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한 전쟁영웅으로 이등병에서 시작해 대장까지 오른 전설적인 명장인 한신 장군은 "부하들은 자신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지휘관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했다.

교관이 사관생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관은 사관생도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하고,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장교' 양성에 교관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국의 산하, 여러분의 어깨에 달렸다!

사회 저명인사 칼럼

이 철 우(경상북도지사)

군은 흉(凶)한 곳이 아니라 길(吉)한 곳으로 남북한을 안정시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낸 신임장교들의 임관을 축하드린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만큼 영예롭고 신성한 일은 없다. 생도 생활을 끝내고 대한민국의 장교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은 이제 당당하고 늠름한 호국간성의 일원이 된 것이다.

경상북도는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의 4대 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이다. 그 중에서도 육군3사관학교가 있는 영천은 호국충절의 땅으로 유명하다. 영천은 신라 화랑들이 통일을 꿈꾸며 심신을 단련했던 주된 활동무대였다. 충절의 표상인 포은 정몽주, 신무기를 만들어 왜구를 물리친 최무선 장군도 영천이 배출한 위인이다. 특히 6.25전쟁 당시 영천대첩으로 붕괴 위기에 빠진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격전지이기도 하다. 육군3사관학교는 이처럼 유서 깊은 호국충절의 역사성 위에 1968년 개교하여 국가안보의 중추 역할을 다해 왔다.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분무를 겸비한 약 5만명의 정예장교들을 양성했으며, 이는 육군 장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한 숫자다. 3사인 중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산화한 영웅도 있고 대공무장공비 작전에서 전사한 호국영령도 있다. 또한 군의 꽃인 장성도 200명 가까이 배출하여 명문사관학교로서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나라의 간성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주목받으면서 매년 우수한 인재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중에는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한 사람도 꽤 많다고 한다. 그만큼 생도들의 국가관과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러나 사관생도로서의 생활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안다. 2년에 걸쳐 엄격한 학위교육과 강한 군사훈련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배의 노력이 필요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 굳은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신임장교들의 어깨 위에 반짝이는 계급장이 더욱 빛나고 앞날에 대한 기대도 크다.

부국강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안보가 무너지면 부국도 의미가 없다. 평화도 안보와 국방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국군은 국가안보를 끝까지 책임지는 최후 보루로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강한 군대는 강한 지휘관 밑에서 나온다.

장교는 리더다. 리더는 앞에 서야 한다.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은 다부동전투에서 "내가 앞장서겠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쏴라"고 했다. 또한 리더는 지혜와 용기도 갖춰야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헌신도 필요하다. 부하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덕목이다. 부대 전체를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아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군의 정예간부가 될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성대에서 갈고 닦은 호연지기의 기상을 발휘한다면 그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열정이 중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열정으로 일으킨 나라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청년세대들의 몫이다. 비록 경제는 위축되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걱정이 크지만 청년들의 재능과 열정을 믿는다. 경상북도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아이 낳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것도 청년들에게 꿈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 여러분은 배움의 전당 충성대를 떠나 야전으로 나간다. 조국의 산하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 3사관학교의 교훈인 '조국 · 명예 · 충용'처럼 조국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명예로운 장교로서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인의 영광과 의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 자랑스러운 신임장교들에게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삼일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제갈덕주 선생의 문화기행 ⑫

제갈덕주(유네스코 대구협회 이사)

고대사회로부터 청년활동은 구국활동의 표상 애국의 첫걸음은 청년이 바로 선 나라

올해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을 대표하는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3월 1일, 국권 피탈의 아픔을 딛고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33인의 민족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항일운동과 남북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수많은 역사적 시련을 딛고 일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들과 경쟁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삼일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에서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현장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필자는 올해 대구광역시의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청년들과 함께 현창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8일 대구광역시의 제안을 받아 대구시 삼일절 기념 행사 홍보용 영상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날 촬영에는 대구 시민을 대표하여 6명의 출연진이 참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필자는 매우 뜻깊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생존해 계신 34명의 독립지사 가운데 1분을 만나게 된 것이다.

올해 92세의 생존지사 분의 함자는 '장병하' 선생이셨다. 지사님께서는 일제의 민족 탄압이 가장 극악한 수준에 다다랐던 1943년에 17세의 나이로 무장독립항쟁에 참여하였다가 발각되어 옥고를 치르셨다. 천우신조로 1945년 광복이 되면서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신 후 현재까지 광복회 등 독립지사 분들과 교류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계신다. 지사님은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농림학교를 다니던 중 일제에 항거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비밀결사단체인 조선회복연구단에 가입하게 된다. 안동농림학교 학생 51명과 지역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한 조선회복연구단은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국제 정세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송을 통해 미군이 일본을 격파하기 위해 한반도로 진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접하게 된다. 이에 연합군의 칼을 빌려 일제를 차도살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 조선회복연구단은 지역 청년들을 규합하여 안동 일대의 일본 헌병대를 급습하고 언론사를 장악하여 국제 정세를 알리는 자발적 후방교란 작전에 착수하게 된다. 이때 주도했던 인물의 나이가 23세였으며, 장병하 지사님의 나이 17세였다. 안타깝게도 작전 준비가 끝나갈 즈음 외부로 전달하던 편지가 발각되어 단원들이 일제히 검거당하는 위기를 맞는다.

옥고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디던 단원들에게 판결이 다가오던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미국의 원자폭탄에 폭격을 받으며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이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선생은 그 후 대구로 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민족 중흥을 위한 교육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육조차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던 시절이라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일생을 바치신 선생은 이제 구순의 나이를 넘기셨다.

생존지사 가운데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대구에는 2분, 경북에는 1분이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 삼일운동 100주년이다. 지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현지에서 독립항쟁을 하시던 지사님들도 생존해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그 분들을 기억하는 이도,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증언해 줄 이도 몇 분 남지 않으셨다. 이번 100주년에는 이런 분들의 증언이라도 모아서 채록하고 영상 자료라도 남겨 우리의 역사를 지켜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육군3사관학교에서도 10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을 돌이키는 재무장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잡코리아 창업자, 통합보안업계 1위"

조은시스템 김승남 회장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감사합니다. 육군 간부후보생 181기로 임관하여 21년 복무 후 전역하고 사회에서 11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하여 25년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인입니다.

▲ 베트남에서 연락장교로 근무하던 시절

Q 중령으로 예편하기까지 21년간의 군 생활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A 베트남전에 2년 참전하는 동안 3번의 헬기 추락과 오작교 작전 등 치열한 전투에서 생사의 순간마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일, 그리고 한국훈장과 미국훈장을 몇 개 받았던 것이 기억남고 옛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은 죽을 때까지 군을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군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Q 국내에 IT 및 보안업계가 큰 비중이 없었던 시절에 이 분야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나요?

A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의 변화가 시작 되었구나' 라고 여기고,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IBM 노트북을 첫날 첫 컴퓨터로 사서 여러 기능을 익히는 도중 인터넷이 등장하여 거기에 미친 일이 있었어요. 이후 '컴퓨터에 연동된 보안 사업을 하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친척집 4평 창고에서 4명이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군 선후배들이 적극 성원해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쯤 지나 인터넷이 도입될 때 청주에 있는 집을 팔아서 3억원을 투자하여 '칼스텍' 이라는 인터넷 회사를 창업하고 '칼스' 라는 포탈사이트, '아이러브밀리터리'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 '잡코리아' 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되었을 때 IMF사태가 일어나 회사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본금의 5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절박한 심정으로 투자자를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모든 사이트를 없애고, 무료로 운영하던 구인구직 사이트인 '잡코리아' 를 유료화하는 등 축소 구조조정을 거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고 정말 우연히 창업하였는데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한 결과 연관회사들이 연 매출 2천억원 정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Q 창업을 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를 다노(多勞) 다학(多學) 다시(多施)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삼다(三多)는 많이 일하고 많이 노력하며, 많이 배우고 많이 주는 삶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좋은 성공의 비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일하고 노력한다면 한 발 앞서가지 않을까요? 세상을 보는 안목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다학(多學)은 부단히 공부하고 자기계발을 의미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광범위한 분야의 독서, 지식탐구, 실력을 배양하는 노력이 소중하지요. 다시(多施)는 많이 주는 것인데, 봉사 · 헌신 · 기부 · 사회공헌과 같이 모두 주는 것이 아름답지요. 인생 한번 살면서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Q 이 자리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이겨 냈을 겁니다. 사관생도들도 앞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텐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내 경우에는 군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일이 있었고 갑자기 전역하고 또 전역 후에 친지의 재정보증을 서 준 일로 가정이 파산한 일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어려움은 더 좋은 기회를 주시려는 새로운 메시지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며 마음을 추스르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한다. 그리고 안 좋은 일에는 늘 새로운 기회가 생길거다. 감사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좋은 기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군에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특별한 축복으로 여기고 즐기며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Q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를 거 같습니다. 생도들은 임관 후 초임장교로서 많은 병력들을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로서 부하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리더십은 지난 60여 년간 꾸준히 달라져왔어요. 권위적으로 '나를 따르라' 며 이끌어가는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보가 공유되고 첨단 과학이 모든 분야를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줄 때 부하들은 승복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시에 부하들에게 "고지에 올라가 같이 죽자"라고 외친다고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부하를 만든다는 것은 실력과 인품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마음이 합쳐지는 통솔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단한 자기 연찬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프로가 되라고 격려합니다. 프로는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아마추어는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혼을 다 바치고, 없을 때는 마음껏 푹 쉬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Q 앞으로의 회장님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나는 제4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군 생활 21년이 제1의 인생이라면 전역하고 11년간 직장생활이 제2의 인생, 창업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금이 제3의 인생, 은퇴 후 여생이 제4의 인생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이제는 문화예술, 인류학과 같은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되돌려드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공헌도 열심히 하려 하고 있어요. 군을 위한 기여도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 젊은 청년들을 찾아서 성원하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탈북청소년, 장애우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뜻있는 분들과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군의 리더가 될 사관생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러분 인생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스스로 실력과 인품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변해야합니다. 군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리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능력을 갖추고도 필요시 져 줄 수있고 손해 볼 줄도 알고 약한 상대에게 따듯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육군 장교로 임관되는 여러분에게 축하드리며 기회가 되면 세계를 상대로 멋진 여러분의 세상을 만드세요.

주간 고성진

사관생도 우리들의 이야기

55기 기자생도 박 동주

▲ 자신이 배울 전공에 대한 소개 교육을 받고 있다.

▲ 생도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 충성 기초훈련 가입 교식간 단체 경례를 하고 있다.

▲ 화생방훈련에 앞서 조교가 설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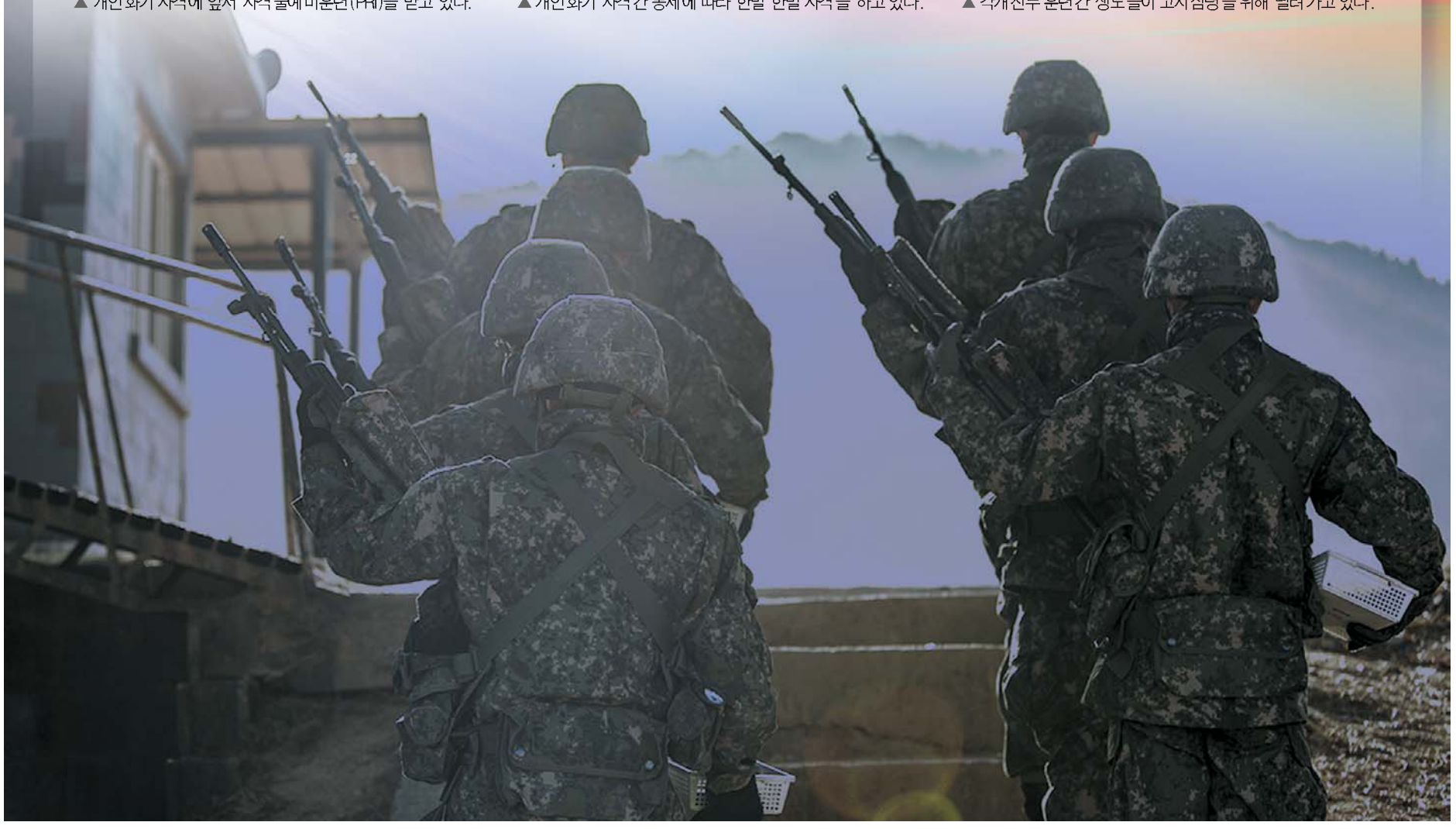
▲ 교관과 생도들이 Why? 캠페인 방법을 적용하여 토의하고 있다.

▲ 경계 훈련에 임하며 전방을 응시하고 있다.

▲ 개인화기 사격에 앞서 사격 술예비훈련(PRI)을 받고 있다.

▲ 개인화기 사격간 통제에 따라 한발 한발 사격을 하고있다.

▲ 각개전투 훈련간 생도들이 고지점령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기고문

연합 · 합동작전을 생각하는 생도들에게

소령 오제용
제20기계화보병사단 종합분석장교 (40기)

사관생도 여러분! 임관 후 여러분은 각자의 근무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직책과 제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개인마다 원하는 진로는 다르겠지만 향후 연합 · 합동작전분야의 중요성과 인력의 소요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생도시절부터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합 · 합동작전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

군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육 · 해 · 공군 · 해병대 중 2개 이상의 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합동작전과 2개 국가 이상의 군대가 연합으로 실시하는 연합작전을 연합 · 합동작전(Combined and Joint Operations)으로 통칭하고 있다.

연합 · 합동작전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2차 세계대전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과 지평리전투 등 전사(戰史)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승리한 전투와 전쟁에는 유기적인 작전이 큰 몫을 했다. 둘째,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 국가에 의한 위협뿐 아니라, 잠재적국, 폭력집단, 테러, 재해 · 재난 등 다양해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및 다양한 조직 간 협력이 요구되는 연합 · 합동작전은 미래에도 더욱 요구된다는 것이다.

▲美 합참대교육 중 교관, 학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합 · 합동작전을 위해 갖춰야하는 자질(Qualification)은 무엇인가? 필자가 올해 전반기까지 미국 합동참모대학교(JFSC, Joint Forces Staff College)에서 받았던 교육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타군과 타국군을 이해하는 마인드와 소통능력이다. 여기서 다름을 이해하는 마인드라 함은 타군과 타국군의 조직과 능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하여 이를 작전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소통능력은 타군과 타국군의 고유한 문화와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학 및 협조능력을 구비하여 작전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군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자원(Resource)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 · 처, 심지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연합 · 합동작전능력은 하루아침에 구비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타군과 타국의 무기체계와 환경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한다. 또한, 타군 및 타국군과 협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특히, 최근에는 군에서 교육 후 보직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을 받는다면 일정 시기가 되었을 때 필요한 직책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교육은 군사영어반 또는 제2외국어반, 해외 고군반, 해외 지휘참모대 · 합동참모대, 한국 합동참모대 기본 · 고급과정 등이 있으며, 경력으로는 타군 교환보직, 해외파병 등이 있다. 필자의 경우, 군사영어반(08년), 美 정보고군반(12년),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기본 정규과정(15년), 美 합동참모대학교(18년)에서 교육을 받았고 연합 · 합동제대에서 한 · 미 연합연습, 교류회의 등에 수차례 참여하면서 지금도 경험을 쌓으며 노력중이다.

현재 육군은 일정수준의 어학능력을 구비한 인원들을 연합 · 합동전문예비자격(L)을 부여하고, 그 후 합동직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전문자격(JQ)을 확정 · 부여 관리하고 있다. 특기가 부여되면 합참, 연합사, 지작사를 포함한 작전사급 제대, 연합사단 등의 연합 · 합동직위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한 · 미동맹을 통해 안보를 지켜왔지만,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우리군 주도의 작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행능력이 더욱 향상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강대국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어느 나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한 사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도들은 임관 후 각자의 병과에서 지휘관 및 참모역할에 최선을 다해 전문성을 갖춘 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연합 · 합동작전분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육군 리더십'이 지향하는 군사전문성을 가진 통섭형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생도시절에는 미래를 위해 그 어떤 것에 도전해도 아주 이른 시기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관생도들이 미래 우리 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원해본다.

기고문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의 믿음

대위 송 재 준(생도대 1훈육대 훈육장교)

출생부터 '군인'은 없다. 대한민국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의 전환을 거친다. 그 중 우리는 장교로서의 삶을 살거나 살기위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군인은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평시 사람(개인), 조직(부대)을 안정적으로 지휘하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부대를 대표하고 지휘해야할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부대를 책임지고 관리해야할 우리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학교는 군에서 장교에게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된 장교를 길러내기 위해 기본소양은 '교수부'에서, 전기전술은 '군사훈련처'에서, 인 · 품성 · 자질은 '생도대'에서 유기적으로 생도를 양성 중이다. 허나 이 과정을 거치면 모두 다 사람(개인), 조직(부대)을 완벽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가?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에 '야전은 학교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너무도 많은 가변요소와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을 관리하는 우리도 사람인데 완벽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 다만 '완벽해 지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답을 하고 싶다. 그럼 그런 나를 바라보는 부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하다'고 답할 수 있다.

소대장으로 임무수행하며 나는 종교를 통해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소대원의 이야기를 하고자한다. GOP임무수행을 마치고 FFBA로 철수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신병이 전입 온 날 유난히 비도 많이 왔다. 키가 작고 깡마른 체구에 어두운 얼굴은 직감적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겠다고 느꼈다.

행정보급관에게 전달받은 신상명세서는 그 직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다. 유복한 환경에 누가 봐도 문제없는 조건은 내 경험적 요소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방증이기도 했다.

그렇게 전입 후 2주가 경과된 금요일 새벽, 중대 당직사관인 선임소대장의 연락을 받고 난 많은 고민에 빠졌다. 신병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다. '허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셨다, 도구를 활용했고 그 장면을 6학년 동생이 모두 다 지켜본 가운데..' 라는 내용이었다. 나도 충격이었는데 이 사실을 신병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답이 없었다. 또 선례가 없었기에 선임소대장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난 그 날 아침이 밝아올 때 까지 잠을 잘 수 없었다. 밝아온 아침, 사실대로 내용을 전달하며 난 다시금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너무도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신병의 입에서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와 모습에 다시금 놀랐다. 난 솔직하기로 마음먹었다. 난 경험이 없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중대장님께 건의드리겠다고 또 지금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손을 맞잡은 순간 신병은 변했다. 울기 시작했고 '소대장님, 어떻게 해야 하냐, 도와달라' 등의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같이 울어주고 또 기도해줬다.

언제나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다. 내가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이나 뜻과 같지 않고 내 경험을 일반화해서 상대의 공감을 얻어내기란 더욱더 어렵다. 우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사람을 관리해야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투를 해야 할 부하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을 주고 마음을 움직여 최상의 전투력을 보존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혹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통해 자신의 종교행사 참석여부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도 한다. 되묻고 싶다. 우리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종교에 대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준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냐고, 그게 평범한 일반인들의 사고 수준일지라도 말이다.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㉓독립투사 김낙헌(金洛憲) 선생 댁을 찾아서

2019년 을해년(乙亥年)은 1919년 기미년(己未年)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뜻이 깊은 해이다. 그래서 올해 '명문가를 찾아서'의 집필 방향은 3.1운동 관련 집안 또는 애국지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 독립지사 일와 김낙헌 사적비

3.1만세 운동뿐 만 아니라 하위 항목으로 항일투쟁, 광복군, 독립군 등의 주제어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기술할 까 생각중이다. 기존의 '명문가를 찾아서'가 학교 인근을 소개하는데 그쳤다면 올해에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공간의 확대를 꾀하고자 한다.

1년의 계획은 비록 크게 세웠지만, 2019년 첫 번째 '명문가를 찾아서'는 학교가 있는 지역인 영천부터 시작하겠다. 그 첫 번째 방문지는 3.1만세 운동 당시 영천지역의 만세운동을 최초로 주도한 독립운동가 김낙헌(金洛憲) 선생의 유적지이다.

김낙헌 선생의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치원(致元), 호는 일와(逸窩), 이명(異名)은 김영헌(金榮憲)으로 1902년 지금의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태어났으며 1965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는 김규정(金奎鼎), 어머니는 월성 손씨(月城孫氏)이다.

김낙헌 선생의 유적지는 현재 영천시 임고면에 사적비만이 남아있다. 학교에서 차로 출발하여 임고서원에 도달한 후 임고서원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약 3분 정도만 더 운행하면, 임고면 황강리에 위치한 '독립지사 일와 김낙헌 사적비(獨立志士逸窩金洛憲史蹟碑)'를 찾을 수 있다.

김낙헌은 1919년 4월 26일 지금의 영천시 임고면 양평리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처음으로 계획하고, 천으로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큰 기를 만들어서 4월 27일 영천시 창구동 장터 부근에서 '독립만세'를 혼자서 외치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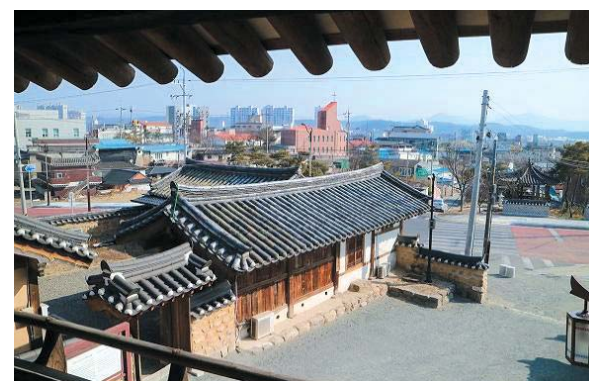
같은 해 5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6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6년에는 융희황제가 붕어하자 국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규탄하는 글을 보냈다가 다시 일경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구금되었고, 이후 1938년에는 「대한복수가」를 작사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등 지역민에게 독립 계몽사상 활동을 전개하였다. 현재 김낙헌의 묘소는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효리에 남아있다.

1992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으며, 1993년 후손들이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 사적비를 제작하였다.

영천을 대표하는 애국지사이고, 또한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인물인데 비해 오직 사적비만이 그 당시 김낙헌의 충정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증표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학교로 복귀하는 길에 너무나 아쉬워서 다시 영천향교로 차의 방향을 돌렸다. 창구동은 현재 영천 향교에서 시내를 바라보았을 때 10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택지로 바뀌어, 100년 전에 영천장이 열렸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


▲ 영천 향교, 이곳에서 10시 방향에 창구동이 보인다.

향교의 누각에 올라서 눈을 감으니, 100년 전 온갖 두려움을 무릅쓰고, 장터에서 혼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18세 소년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한참 후에야 눈을 뜰 수 있었다.

중령 최재호

전쟁과역사〈1〉

근대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러일전쟁

대위 문준호
(교수부 군사사학교수 / 육사 67기)

예상치 못하게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세가 굳어지자,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의 지연정책을 철회하였다. 군부와 외교부의 수뇌들이 주관한 궁중회의에서 러시아 정부는 일본을 제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극동의 영구적 평화와 조선의 독립국 지위보장이었고, 실질적 목적은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부동항의 확보였다. 이에 청일 양국의 전후 강화조약인 시모노세키조약에 대한 억제로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연합하여 삼국간섭을 시행하였다.

한편 당시 조선 정국운영의 핵심이었던 명성왕후는(대한제국 수립 이후 명성황후로 추존) 삼국간섭을 주도하고 남진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가 일본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정무적 판단하에 친러정책에 치중하였다. 이에 일본은 일국의 국모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자행하면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내비추었다. 신변에 위험을 느낀 고종 또한 아관파천을 단행하여 조선의 자주성은 일면 퇴색하였다.

독립협회의 주도적 노력과 국민적 요청에 따라 약 1년이 경과한 후 고종은 환궁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세력균형 속에서 조선은 광무연간 나름대로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대외적으로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러시아와 일본은 군비경쟁을 지속하여 전쟁 위기는 점증하였다.

영국과 일본은 대등한 국가 입장에서 영일동맹을 체결하였고, 미국은 만주에서의 이권 확보를 위해 러시아를 견제할 대리국이 필요하였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모로코를 두고 식민지 경쟁을 벌이는 등 삼국간섭 주체들의 합종연횡은 느슨하다 못해 와해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의 대결구도는 러시아 대 일본(영국과 미국의 적극적 · 대규모 지원)로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승리를 예측하였다.

1904년 2월 8일, 일본은 여순 기습공격을 기점으로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개시했다. 동시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은 일본의 동맹국이 되었다. 신장된 병참선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등 군사적 성격이 짙은 공수동맹이었다. 이후 일본은 압록강 전투에서 승리하여 러시아군을 여순으로 몰아내고 만주로 진입하였다. 난공불락의 여순 요새 확보를 위해 일본은 제3군을 편성하여 소모전을 벌였으며, 종국에 이를 확보하고 태평양함대 또한 침몰시켰다. 한편 수에즈운하 활용 제한에 따라 장거리 회항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발틱함대에게 일본의 여순 함락은 큰 충격이었다. 이들은 최종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설정하고 기동하였다. 이에 일본은 주요 해안 거점에 군사용 망루를 설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 명명하며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하기도 하였다.

결국 일본 연합함대는 적극적인 해양수색 및 조기포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주요 기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발틱함대를 대한해협에서 거의 전멸시켰다. 이것이 바로 러일전쟁의 대표적 전투인 쓰시마해전이고 당시 지휘관은 도고 헤이하치로였다. 당시 도고는 T자 진형을 토대로 화력의 집중과 규모측면에서 우세한 조건을 조성한 뒤 승리를 도모하였다. 그야말로 선승이구전(先勝而求戰)의 적용이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지휘관이었던 도고 제독은 일약 일본의 전쟁 영웅으로 거듭났고, 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지닌 영국도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극동에서의 제해권 장악, 사할린 확보라는 목표도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운을 두고 이어진 총력전에 따라 일본은 전쟁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집권층도 작전적 차원의 전략수행에는 자신 있었지만, 군수적 차원의 전략수행에는 러시아에 비해 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러시아 내부에서는 2월 혁명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다. 러시아에서 활동중이었던 일본 공작원들의 역할도 일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구제도의 모순에 따른 자연스러운 역사적 전개였다. 따라서 양자는 미국의 주선으로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외교적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공표되었다. 직접적인 전쟁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대한제국은 전쟁의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광적인 군국주의의 팽배로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다.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에 따라 외교권 및 행정권이 박탈당하였으며, 국가의 보루인 군대까지 강제로 해산되었다. 일제의 폭압에 의한 강제 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에 병탄당하였다.

젊은이들의 구강병

건강상식

대한예방치과학회 전 회장, 단국대 치과대 명예교수 신 승 철

사람이 건강하려면 일단 잘 먹어야 하고, 필수 요건이 튼튼한 치아이다. 이에 국방을 책임지는 젊은이들의 구강병 대처법을 알아본다.

첫 번째로 잘 발생되는 젊은이 구강병이 충치이다. 충치는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끈끈한 미세 음식물 찌꺼기인 치면세균막 즉, 프라그에 있는 충치 세균들이 우리가 먹는 당 성분을 함께 먹고 살며 산을 배설하는데, 배설된 산이 지속적으로 치아표면에 붙어 있으면 치아표면을 부식시켜 까칠하게 되고 칼슘성분이 빠져나가서 서서히 구멍이 뚫리게 된다. 그러니까 충치를 안 생기게 하려면 당 섭취를 줄이고, 식후나 간식 후에 이를 바르게 닦아서 프라그를 제거하면 된다.

충치는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다. 6개월 정도 지나야 점이 생기고 1년이 지나야 검은 선이 생긴다. 그리고 몇 년 지나면 구멍이 패이고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항상 치과를 자주 가서 검사해 보고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초기에 살짝 제거하고 메우면 쉽게 해결 된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 절대로 저절로 낫지 않고 치과에서 신경을 제거하고 수일간 치아 내부를 소독하는 신경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가 다 끝나더라도 이미 죽은 치아를 박아 놓은 것이기에 쉽게 부러져서, 인공치관으로 크라운을 씌워 주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많은 젊은이들 치과 질환이 치주병, 즉 잇몸병이다. 미세음식물 찌꺼기인 치면세균막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있으면 프라그 내에 있는 치주병 세균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방귀 뀌듯 독소를 내뿜어 주위의 잇몸에 빨갛게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프라그가 수개월 동안 붙어있으면 침 속에서 칼슘과 인 성분을 조금씩 흡수해서 서서히 석회화되는데 마치 돌처럼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 있게 된다. 이것을 치석이라 하는데 치석은 주위의 잇몸을 자꾸 찔러서 만성 염증을 야기 시키고, 치아 뿌리가 박혀있는 턱뼈를 파괴시켜서 치아가 흔들리고 뽑히게 만든다. 그러니 이 치주병을 예방하려면 우선 식후에 이를 잘 닦고, 일 년에 한번 씩은 치과에 가서 쌓인 치석을 긁어내는 스켈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잇몸이 붓고 피가 잘나고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있으면, 약 먹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고 치과에서 잇몸 수술을 받아야 한다.

또 하나 젊은이들에 빈번한 치통은 사랑니이다. 사랑할 나이에 나온다고 사랑니라 했지만 이름처럼 이쁘지 못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다. 윗니 사랑니 보다 아래 사랑니는 바로 나오지 못하고 비뚤거나 악골 속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옛날에 비해 요즈음 젊은이들의 얼굴 형태가 음식의 변화 등으로 좁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약 반 정도는 사랑니가 아예 없다. 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젊은이가 맨 뒷 치아부위가 빠근하게 아프면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수술로써 발거해 내야 한다.

결국 젊은이들 구강건강관리는 식후와 잠자기 전에 이를 잘 닦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조기에 치료받으며 스켈링을 받는 것이라 하겠다.

회전법 이닦기

▲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서 위로 손목을 돌리면서 쓸어내리거나 올립니다.

▲ 앞니의 안쪽은 칫솔을 곧바로 경사지게 넣어서, 안에서 밖으로 큰 원을 그리듯이 훑어냅니다.

신용평가 바로 알고 내 신용등급 올려보자

손에 잡히는 재테크 ㉓

국군사랑전담컨설턴트 이 시 명

신용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라면 누구라도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항목이 신용 평가에 반영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신용관리를 하는 방법을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신용평가 요소에 대해 바로 알고 신용등급 관리를 시작해보자.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연체 없음'이다. 대출금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연체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이외에는 통신 ·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실적이 있을 경우 등이다. 신용이란 무엇인가? 신용이란 경제활동에서 돈이나 상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약속대로 상환, 지불 또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약속대로 상환'이 바로 연체가 없는 것이기에 당연한 반영요소들인 것이다.

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들도 있다. 긍정적인 요소와 반대로 '연체 있음', 혹은 '연체 가능성 있음'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대출금을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시, 연체기간이 길수록 상환 후 최장 5년까지 평가에 반영된다. 신규대출이 많고 대출 건수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일수록, 현금서비스를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시 부정적으로 반영된다. 제 때 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고, 이자가 높은 대출까지 받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자면 만일 연체가 여러 건인 경우 연체금이 큰 대출보다 오래된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등급에 대해 자주 나오는 내용들도 정리해보자.

1. 신용조회사실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 ➡ 다만 무등급자에 대해 신용등급 부여 시 활용될 수 있으며, 단기간 내 다수의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 대출사기 방지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신용등급이 높은 것은 아니다. ➡ 신용등급은 금융거래 시 제 때에 잘 상환했는지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득과 무조건 비례하지 않는다.
3. 신용카드 보유 개수와 신용등급은 무관하다. ➡ 상환능력에 맞게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여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신용등급 평가에 좋은 요소가 된다.
4. 연체금을 상환하는 즉시 이전 등급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 신용등급은 장기간에 걸친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고 연체 경험자는 향후 연체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대출 등 금융거래가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것이 아니다. ➡ 신용도를 판단할 금융정보가 부족하여 통상 중간등급인 4~6등급을 받는다.

재테크는 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관리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내 신용등급이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게 평소에 관리를 잘 해두자.

포토에세이

54기 기자생도 김 찬영

절차탁마(切磋琢磨) – 옥돌을 쪼고 갈아서 빛을 냄

충성대문학상 최우수 : 수필

40°의 청춘

생도 최준령
(6훈육대 / 54기)

험악한 산지대에 자리 잡은 화산유격장 첫 아침엔 함성과 기합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유격체조를 하느라 여념 없는 생도들이 열정을 토하느라 그렇다.

이번 여름이 내민 악천후는 역경의 연속이었다. 군장을 메고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것도 고역이지만 알미운 무더위가 우리를 계속 괴롭혔다. 내리쬐는 햇살이 우리의 살갗을 따갑게 때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내 몸의 염분이 닳을 정도로 쏟아지는 땀방울과 목을 옭아매는 갈증도 감내해야 했다. 우리는 심신적으로 붕괴 직전에 놓이더라도 훈련을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어선 안 되었다.

우리는 남다른 청춘을 보낸다. 내 또래들은 여름 해변의 낭만(?)을 만끽할 때 우리는 방탄모를 머리 위에 누른 채 묵직한 총을 쥔다. 우리의 청춘은 열정적이다. 끊임없는 시련을 이겨내며 도전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조국을 지키는 자격에 도달하고자 발휘하는 열정과 단련은 태양이 발산하는 열기에 비할 데가 안 된다.

훈련에 따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지가 달랐다. 생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훈련은 단연 소대 전술훈련이었다. 5시에 기상하여 7~8km 걷고서 도착하여야 훈련이 시작된 까닭이다. 그 훈련은 약 30명 가량이 한 개 소대 단위로 움직였다. 우리는 3소대로서 공격작전을 감행하였다. 여기서 소대장의 리더십 아래 분대장 및 예하 소대원들이 팔로우십을 발휘하는 게 관건이었다. 나는 지원분대에 소속되어 선두에서 진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는 소대의 최선두에 있는 만큼 목표 방향을 잃지 않고 진로를 개척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랐다.

한 번은 길게 늘어진 도랑 밑에 형성된 늪을 건너야 할 때가 있었다. 정말이지 늪에 발을 들이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었다. 발목까지 잠기는 깊이에서 느껴지는 물컹한 감촉은 물론 불쾌한 냄새가 내 코를 찌른 까닭이다. 그러나 늪에 울창하게 자란 수풀로 인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만일 내가 길을 잃는다면 우리는 이 끔찍하기 짝이 없는 늪에 오래 머물러야 했다. 뒤에 소대원들을 두고

나는 길을 찾는 데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웬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는 건 내 능력 밖이었다. 그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수풀을 헤치고 나아갔다. 내가 내딛는 한 발, 한 발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개척자의 부담인 것인가. 우습게도 그 찰나에 세상 모든 개척자가 존경스러웠다. 다행히 옆에서 동행하며 줄곧 입을 닫고 있던 조교의 조언(?)으로 길을 잃지 않고 늪지대를 벗어났다. 조교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찔하다. 못난 나를 앞에 두고 따라온 모든 소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늪지대를 벗어나면 입이 턱 벌어질 만큼 가파른 언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휴식도 잠시 목표를 향해 서둘러야 했다. 첩보에 의하면 적 단도화기사격조와 마주할 가능성이 있었다. 우리 분대는 팽배한 긴장감을 안고 은밀하게 나아갔다. 그 와중에 언덕을 오르느라 나오는 탄식소리와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참아낼 수 없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이 연신 내 눈을 찔러 댔다. 팔과 손을 지면에 지탱하면서 올라가야 했다. 여기서 인간은 이족보행이 아니었다.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한 분대원이 적 단도사격조를 포착하였다. 전방 200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복장의 3명이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아직 우리를 식별하지 못했기에 은밀하게 우회하여 적과의 교전을 회피한 채 이동하고자 했다. 완수신호와 함께 발각 위험을 최소화하고 분대원 공동으로 노력하며 전진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달리 금방 발각되어 적으로부터 무차별적 사격을 받았다.

이제 방법이 달리 없었다. 즉시 교전상태로 돌입하여 제압사격을 시도했다. 이 때 나와 소총수 1명이 함께 최대한 우회하여 적 후미로 접근하고자 했다. 이외 분대원들의 엄호사격이 이어지면서 우리 둘이서 과감하게 뛰어갔다. 총성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우리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적의 측면으로 파고들어 후미에 도달했다. 적이 전방의 분대원들에게 시선이 고정된 찰나 뒤에서 우리가 조준사격을 가하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공포탄 6발을 소모했다.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화약 냄새가 사방에 진동하는 가운데 숨을 헐떡이며 목을 축였다. 동기들과 서로 물을 나눠 마시면서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갈 채비를 갖췄다. 훈련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땀에 의해 온 몸이 적셔 있었다. 흠뻑 젖어 불쾌감을 느낀 건 오래다. 차라리 땀 범벅이 된 채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달래는 게 나았다.

태양이 지평에 처박힐 때까지 열띤 훈련을 거듭할 때면 수면의 충동이 점차 커진다. 야밤 중 긴장감은 여전하다. 잠을 청하려면 아침에 걸은 거리만큼 복귀 행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훈련의 하루 일과를 마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었다. 사실 나는 행군에 자신이 없었다. 6월 초 오른쪽 정강이에 골절이 있어 2주 간 목발에 의지했던 탓이었다.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다. 매일 반복하는 행군과 더해 훈련 중 증세가 누적되다 보니 행군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나만 아픈 건 아니었다. 많은 동기들도 훈련에 지쳐 피곤하고 몸이 편치 않았다. 그럼에도 행군을 열외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열외하는 행위는 나에 대한 굴복이었다.

생도로서, 장차 장교가 될 자원으로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은 채 포기해선 안 됐다. 걸어가기 힘들더라도 이겨내는 도전을 계속하였다. 정강이를 휘감는 찌릿함은 여전하나 걸음에 관성이 붙으니 할 만 했다. 내가 뒤처져서도 멈춰서도 안 됐다. 내 뒤에 말없이 걸어가는 동기를 두고선 내가 멈추어선 안 되었다.

하계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유격훈련은 녹록치 않았다. 첫 날에 실시된 유격체조 간 쓰지 않던 온 근육이 동원되어 바삐 움직였다. 다음날이면 찌르는 고통이 온 몸을 관통했다. 오히려 나는 몸을 아끼지 않고 격하게 사용하였다. 요령 피우는 법은 절대 없었다. 그랬더니 통증은 잊혀지고 더욱 단련되었다. 어쩌면 통증에 익숙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청춘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각오와 동반 없이는 강해질 수 없다. 어느새 총기의 감각이 익숙하고 군장에 짓눌린 어깨가 가볍다. 우리의 맹위를 떨친 함성소리를 질러대느라 목은 쉬어 있다. 서로 검게 그을린 피부색을 보고선 웃음 짓는다. 그것이 우리의 청춘이거늘.

|여|행|추|천|

놀고 먹고 즐기는 생도 추천여행지 : 대구 ③ 서문시장역

'납작만두' 부터 '단팥빵' 까지, '별미' 여행

▲서문시장 풍경

놀고 먹고 즐기는 추천여행지 대구편 세 번째는 서문시장을 소개하려 한다. 골목마다 별미가 가득한 서문시장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서문시장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만날 수 있다. 경북 최대의 시장이며 대구의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 이곳은 고객층이 젊어지면서 서문시장에 활력이 넘치고 있다. 시장 골목을 누비다 보면 다양한 먹을거리와 맛있는 곳이 아주 많다. 비빔밥 골목과 순대 골목, 칼국수 골목을 비롯하여 철판에 굽는 납작만두, 유부전골, 떡볶이 등 매력 만점의 음식들이 지나가는 손님의 발길을 잡는다.

▲납작만두

서문시장역 4번 출구로 나와 동산병원 뒷길을 따라 200m쯤 올라가면 이국적인 주택이 보이면서 1.64㎞ 근대골목 투어가 시작된다. 청라언덕의 선교사 주택은 빠르게 변하는 도심에서 온전히 남은 역사적인 건물로, 최초의 서양식 주거 양식으로 근대건축 유산의 의미가 크다.

선교사챔니스주택에 가면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가 있어 문화와 예술이 스민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은 의료선교박물관으로 개방하는데, 1890년대에 사용한 의료 기기가 전시되어 가족 방문객에게 인기다.

▲선교사 챔니스 주택

의료선교박물관 밑으로 3 · 1운동길을 내려가면 빌딩 숲 사이로 고색창연한 계산성당이 보인다. 계산성당은 서울과 평양에 이어 프랑스 선교사가 설계해서 지은 고딕 양식 성당으로 서상돈, 김종학 등 옛 천주교 신자의 모습이 스테인드글라스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 예술품을 만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곳 근대골목을 걷다 출출해지면 대구 도심의 빵지 순례길을 찾아가자. 대구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OO베이커리', 근대골목 여행의 주전부리 명소로 떠오른 '대구근대골목OO빵',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입구

추억의 맛을 선보이는 '반월당OOO' 등 20~30대의 SNS 열풍을 통해 많은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곳으로 어디를 가든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반월당역 16번 출구에서 나와 달구벌대로 415번길 도보 약 10분을 걸어가면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이 보인다. 전국의 한의대생은 물론, 관심있는 사람들은 약령시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피거나 한방체험실에서 한방 원리 탐험과 한방 체험을 하곤 한다. 마당에는 100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약초 족욕탕이 있어 날씨가 좋으면 서문시장과 근대골목을 돌아보는 관광객들에게 지친 발걸음을 쉬기에 안성맞춤이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약령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나는 이곳

▲ 약초 족욕탕

약전골목을 지나다보면 한의원, 한약방, 제탕 · 제환소 등 약재관련 업소가 200여 개나 밀집해 있어 한약재 내음만으로 심신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 출처 : 대구관광 안내 홈페이지

55기기자생도 신 창 윤

2019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18. 12. 22 ~ '19. 2. 28 기부현황)

총자산 72억 772만원 (2019.2.28 기준)

■ 국가발전을 실천하는일반시민(개인/단체): 조재묵 10(175)

■ 3사관학교 발전을통해 軍발전을실천하는분들

이근양(육사#3) 20(350), 정한기(육사#39) 4(68), 곽병호(육사#43) 1(11), 김영환(육사#43) 2(50), 황대일(육사#43) 110(110), 손익수(육사#45) 1(25), 홍성아(육사#48) 2(7), 김호길(육사#48) 1(23), 두석주(육사#51) 2(132), 최정욱(육사#51) 2(7), 이우진(육사#54) 2(34), 박기홍(육사#55) 2(43), 이승규(육사#56) 2(15), 조상근(육사#56) 2(108), 변용성(육사#58) 2(73), 손창호(육사#58) 12(42), 이귀현(육사#58) 2(67), 이주실(육사#58) 1(51), 차도완(육사#58) 2(26), 이은희(육사#59) 1(61), 김진찬(육사#61) 2(37), 홍희종(육사#61) 2(69), 주성임(육사#63) 1(1), 마지희(육사#65) 1(24), 홍인재(육사#65) 2(3), 최병권(육사#66) 1(1), 문준호(육사#67) 2(17), 이찬우(육사#68) 2(12), 부형준(육사#69) 2(27), 이진호(학군#24) 2(55), 한덕수(학군#26) 1(69), 박균열(학군#27) 50(190), 고성진(학군#31) 2(3), 구희곤(학군#32) 2(76), 유명근(학군#36) 2(51), 전성권(학군#36) 2(38), 곽홍렬(학군#37) 2(38), 송경재(학군#37) 2(96), 나창근(학군#41) 2(8), 조환희(학군#41) 2(10), 황태열(학군#41) 2(25), 김도헌(학군#42) 2(35), 김광서(학군#44) 1(26), 김광윤(학군#44) 2(22), 김재윤(학군#44) 2(28), 김태룡(학군#48) 2(14), 민병구(학군#48) 2(2), 김동진(학군#51) 2(22), 구민수(학군#52) 2(55), 유강인(학군#52) 2(14), 황가영(학군#54) 2(7), 박주오(학사#7) 2(85), 최재호(학사#29) 2(96), 이준수(학사#35) 2(80), 김영각(학사#49) 2(14), 김미봉(학사#54) 2(31), 임도현(학사#54) 2(75), 이혜지(학사#55) 2(20), 손성용(학사#55) 1(100), 성현애(학사#56) 2(18), 심정현(학사#58) 2(6), 전여울(학사#58) 2(26), 차성복(여군#45) 2(101), 최순조(여군#46) 2(25), 서나한(여군#47) 2(15), 강소영(여군#49) 2(9), 이희정(여군#49) 2(9), 김형태(단기#22) 2(27), 유현성(단기#26) 2(8), 임윤호(단기#27) 2(8), 김세영(단기#28) 2(28), 강찬영(군종#61) 2(2), 김가람(교수#18) 2(8), 신하영(교수#18) 2(8), 양웅석(교수#18) 2(8), 이지성(교수#18) 2(8), 정영진(교수#18) 2(8), 최우혁(교수#18) 2(8), 최윤정(간호#38) 2(9), 송미애(간호#49) 2(12), 김동중 중사 2(6), 권태원 원사 2(6), 서동균 중사 1(1), 이미진 하사 2(4), 이가현 하사 2(3), 이학수 준위 1(8), 이각우 원사 2(24), 전경억 원사 2(38), 김태환 상사 2(38), 진장철 상사 2(43), 우의택 상사 2(49), 하진구 상사 2(21), 전원식 상사 2(6), 전병열 중사 2(13), 이상혁 하사 1(11), (군무원) 김미혜 2(21), 김영건 2(50), 김인수 2(8), 남희정 2(8), 류재운 2(164), 박병준 6(218), 배상범 1(26), 안영주 2(14), 양성우2(36), 이상일 2(158)

■ 졸업 · 재학생 부모

※ 졸업 · 재학생 부모님 기부 상세현황문의처: 사무국(054)330-3180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윤종택(38부)10, 우해성(38부)10, 이창주(42부)4, 조경해(45모)10, 백인숙(47모)2, 장순일(49부)6, 성동모(50부), 안순봉(51모)10, 윤우상(51부)3, 이경자(51모)2, 이상화(51부)1, 정경숙(51모)2, 김현미(52모)2, 이선화(52모)5, 이영미(52모)3, 정정화(52모)2, 박일심(53모)10, 이영빈(53모)2, 조정숙(53모)4, 홍성기(53부)2, 황경부(53부)20, 고광삼(54부)2, 고홍식(54부) 100, 김영신(54부)6, 박헌욱(54부)20, 심경보(54부)3, 윤명남(54모)15, 이기성(54부)3, 이선미(54모)10, 이인섭(54부)1, 조은조(54모)1, 주옥자(54모)10

▶ **4학년 학부모**(가나다순)
고창희, 김동환, 김상균, 김진우, 남영달, 라은정, 박천규, 박철, 서완수, 양종호, 양용승, 유현구, 윤연희, 이강천, 전근화, 정수태, 정신자, 정원섭, 주영숙, 한순옥

▶ **3학년 학부모**(가나다순)
이교훈, 박홍식, 천선희, 허창성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 **1기** 남훈조 12(1032), 민석식 10(91), 임관택 2(50), 전수천 2(67), 최익환 2(53)
▶ **2기** 변원서 10(84), 윤경혁 10(460) ▶ **4기** 임성기 10(50) ▶ **7기** 이희성2(3)
▶ **9기** 김현기 10(1,068), 권영호 5(265), 윤지환 6(54), 최병학 10(1085)
▶ **13기** 김모일 10(145)
▶ **14기** 김종환2(27), 박장수 10(10), 이순진20(570), 안호20(1530), 하병옥2(339)
▶ **15기** 정태환200(400) ▶ **16기** 이종우2(130), 황병태 4(258)
▶ **18기** 구연덕2(98), 금용백 6(480)
▶ **19기** 이경희1(142), 이종형2(207), 이창효 6(486), 임종철 2(35), 홍성식2(168)
▶ **20기** 김윤회 1(36), 박권순 2(118.4), 서정열 20(345), 서진호 100(200), 조길상4(34), 편철권 100(2400), 황인권 10(395)
▶ **21기** 김진만20(365), 신철수 54(576)
▶ **22기** 권순태 2(22), 이진성 2(230), 정경호 2(15), 조태환 2(106), 홍성덕5(156)
▶ **23기** 김무길 5(151), 김영덕 5(1006), 김창수 4(180), 김태일 2(199.5), 배요식 2(112), 신영찬 2(42), 안진환 5(5), 오승욱 4(220), 정철재4(76), 허강수 2(191), 한상훈 5(5)
▶ **24기** 권금락 4(224), 권오봉 3(185), 김도협 5(202), 김성배 2(299), 김지영 2(314), 남용구 4(226), 모경원 2(197), 박세철 2(41), 방성대 2(51), 송기룡 1(64), 안언준 2(65), 이문휘 2(65), 정정현2(161), 차경재2(26)
▶ **25기** 김남용 2(105), 김대현 1(7), 김만정 2(110), 김희식 2(182), 문봉성 1(121), 서쌍권 2(36), 손영기 5(105), 이종현 2(22), 이상복 2(7), 장광선 6(288), 전희준 2(275), 조재희 2(93), 홍은표 1(170)
▶ **26기** 고창준 2(98), 김동환 10(21), 김영선 4(360), 김준식 2(78), 박윤옥 2(176), 신충인 4(139), 신태영 2(84), 유근환 5(5) 이태인 2(2), 이완주 2(71), 임우영2(214), 장용빈4(70), 전용범 2(26), 홍순범 2(180)
▶ **27기** 김덕중 2(38), 김호복 2(168), 석수열 2(17), 안병욱 2(139), 원희문 10(95), 이회순3(211)
▶ **28기** 권승영1(9), 권양철 2(79), 김진길 2(50), 김만수 10(10), 김하영1(12), 박기수 2(61), 박용섭 4(112), 백종국 4(215), 서청수 2(142), 유정일 1(12), 연경수1(9), 윤석찬2(110)
▶ **29기** 강봉중100(400), 김강식 2(216), 김민수1(7), 김용식 1(42), 박성훈2(123), 박태용52(104), 이상태4(172), 이의규2(85), 임성호 2(134), 최영태 29(29), 최인섭2(96), 최종극 2(163), 현태식 2(120)
▶ **30기** 김종권 2(54), 김효성 2(14), 남진오 2(25), 이진 2(119), 임상달 2(89), 주경호3(85), 홍성범 2(7), 함민호 2(70)
▶ **31기** 김대경 1(1), 김민식 4(38), 김영태 2(152), 김희엽 1(195), 염항수 2(106), 이재춘2(180), 이흔복 2(18), 최대집 2(2), 전경인2(3), 정동진 2(167)
▶ **32기** 권관덕6(245), 김태욱 2(2), 김화용2(83), 이태현2(2), 조원상 2(182)
▶ **33기** 고희용 2(3), 김남식 2(133), 김상선 2(110), 김성수 2(197), 김진년 1(90), 김현규 4(329), 남석진 2(108), 노일 6(74), 안경일 2(204), 안준영6(38), 조영진 2(84), 조우철1(132), 조재봉 2(80)
▶ **34기** 권성진 2(101), 김기수 2(150), 김윤성 2(16), 김홍식 3(345), 신정원 2(36), 이형국 1(37), 임창훈 2(50), 정웅민 4(151), 정창근2(76), 정춘황 2(26), 조수창2(151)
▶ **35기** 김병수 2(49), 김수열 2(39), 박상우 4(60), 박시근 2(153), 손득준 2(59), 송명성 2(2), 이문희 2(119), 임창규 2(77), 장춘삼 2(114), 전기홍 2(48), 전성광 2(7), 정영석 2(76), 정호준4(34), 장영아 2(5), 한종훈 4(307)
▶ **36기** 고마운 2(15), 김강민 2(7), 김명규 2(40), 김현 2(98), 길문수 2(43), 안경무 4(176), 양현승 2(176), 이광희2(120), 이규호 2(85), 이덕재 2(48), 이호진 2(212), 임종수2(40), 장세호 2(171), 정우철2(106), 조동권 2(187), 진연수 2(131)
▶ **37기** 강성봉 2(137), 김남훈 2(169), 김양훈8(151), 김지민 2(53), 김충기 2(46), 김홍년 2(202), 노진철 2(116), 소병민 2(8), 송석봉 4(91), 송용섭 4(225), 안홍선 2(204), 옥원호2(100), 이관모 2(106), 이원형2(210), 이희석 2(84), 이희승 2(2), 임연준2(5), 임원철 2(132), 전성진 2(95), 정우진2(38), 정회철 2(94), 최정호1(5), 함성규2(71), 허지용 2(35)
▶ **38기** 모율하 2(95), 문정민2(84), 문현성 2(97), 서현호1(97), 서성걸 2(41), 송태영 2(5), 신상윤2(95), 이경식2(145), 이정용4(164), 정한옥1(174), 함기훈2(52)
▶ **39기** 강병현 1(180), 김의진 2(95), 김인경 2(50), 박철균 2(48), 송진근 2(50), 송창현 4(20), 심용운 2(52), 이대화 1(180), 이웅렬 3(41), 이정용 2(168), 이종화 2(178), 이준석 2(4), 최현철 2(242), 현효권 1(28)
▶ **40기** 구자윤 4(110), 김백린 1(166), 김윤오 1(4), 김영우 6(154), 김종욱 2(9), 김평준 2(53), 남태근 2(4), 문수혁2(107), 박상규 2(23), 박정훈 1(63), 박진하 2(44), 송석준 2(104), 유형선2(35), 이호연 10(538), 최창국 2(64)
▶ **41기** 김석진 3(143), 김재현 2(73), 박한지 1(154), 방현욱 2(8), 손종득 2(63), 임성은 4(20), 정기채 1(154), 전종상10(25), 최민규 2(91), 최지능 1(177)
▶ **42기** 강재석 2(73), 강정희 2(122), 권영민 2(143), 김경민 4(11), 김동우 2(61), 김용민 2(32), 문보승 2(88), 박효찬 2(122), 손병현2(140), 윤희철 2(120), 이기욱 2(63), 이광호 2(39), 이성욱 2(63), 이승운 2(122), 이신일 2(74), 이용학2(123), 이정열 1(49), 이형진 2(6), 정만기1(114)
▶ **43기** 강민식 4(178), 김나람 1(3), 김인중 2(206), 노창래 2(13), 박민영 1(106), 백두산 4(174), 이남억 1(56), 이도훈 2(36), 이상민 1(112), 이상운 2(74), 이용희 4(161), 엄태섭 2(4), 허광석 6(6)
▶ **44기** 김대은 2(73), 김덕주 2(3), 김성남 2(72), 김인찬 2(15), 김정희2(74), 서동준 2(108), 엄태천 1(61), 윤병희2(140), 오진우 2(10), 오두현 1(114), 이민재 2(100), 이영민 1(107), 정세훈1(2)
▶ **45기** 김동호 2(105), 김대현2(64), 권기호 2(104), 박영일1(105), 박정훈 1(107), 박지훈 2(8), 서석관4(20), 서우정 1(99), 신유철 1(93), 이진희1(97), 임우성 2(8), 염규헌 2(4), 유제훈 2(8), 정진우 1(101), 정재현 2(98), 장유정 1(1), 채희용2(97), 최충수1(102), 황도현2(75), 황승세 1(104)
▶ **46~53기세부현황은 재단 홈페이지 및 충성대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54기 동기회 3000**

■ 2019년 학교발전기금 사업계획(목적사업비 1억 8,060만원 편성)

계	입시홍보	생도해외견학	장학금지원	교육증진	학교홍보/기타
1억8,060만원	28,500,000원	88,000,000원	30,000,000원	11,800,000원	22,300,000원
비고	예비생도교육/생도모집광고	4학년 생도대상	성적/품행우수생도	일반/군사학 지원	학교달력제작/초청/언론홍보

생도 54기! 학교발전기금 7억원 조성에 기여하다!

지난 2월 28일 임관 및 졸업한 54기 졸업생들이 모교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총 7억원의 약정서(동기회 3,000만원, 개인약정 총액 6억 7천만원)를 55기/56기 입학 및 진학식 행사장에서 54기 동기회장(김재진 생도)이 정든 교정을 떠나며 졸업생 전원의 정성이 담긴 학교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김기영 재단이사에게 전달하며 선배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약속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